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정록



제35대 전남도지사에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압도적인 표 차로 재선에 성공한 것도 축하합니다.

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전반적인 도정은 귀하의 충성스러운 전남호의 1등 항해사들에게 맡기십시오.

박준영 도지사께

지역발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현안들만 직접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매진하십시오. 도민들은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 동력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유치에 실패하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커다란 정신적 공황에 빠지고, 귀하의 정치적 리더쉽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암초에 걸려 좌초된 신세의 '전남호'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전하기를 가장 기피하는 지역, 일자리가 없어 인구가 썰물처럼 빠지는 지역,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마땅한 성장동력이 없는 지역이 귀하가 조타할 전남호입니다.

귀하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0가지 정책에 41건을 발표했습니다. 제시한 공약이 실현된다면 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경인



학창생활을 한 사람중에서 선생님에게 매를 한번도 안맞아본 사람이 있을까? 또 교사나 부모치고 제자나 자식에게 매질 한번 안해본 사람이 있을까?

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필요한 매질, 사랑의매라고해서 불가항력일 때, 매질을 응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육과 학생의 처벌문제

린이의 머리에 노트를 던졌다. 또 이번에는 여자 어린이를 불러내 뺨을 때리고 가슴에 노트를 던졌다. 이유는 필기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것이었다.

관을 갖지못한 교사중에는 교육적인 효과보다도 감정이 앞서 잘못이나 과실을 범하는 일이 없지도 않다.

은행 '대출실수' 사과 않고 변명만... 횡당·어이없어

몇달 전 국내 대표은행이라 할만한 곳에서 500만원 대출을 받았다. 매달 일정액씩 갚는다는 조건이었는데, 어느 정도 상환한 뒤 남은 금액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

아오라는 말을 해 내 일을 재쳐놓고 본사로 찾아가 확인하니 은행측 실수로 밝혀졌다. 횡당하고 어이가 없어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산상의 착오"라는 말만 하고 미안한 내색도 하지 않는 것이다.

기고

최익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로 사상 초유의 급식대란이 벌어지는 등 학교급식 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급식대란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국민의 여론이 들끓자 지난달 30일 서둘러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촛국이 연출되기도 했다.

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급식대란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식재료의 생산에서 조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 도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편의점 손님,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의식 아쉽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을 모아 수요일 새벽에 내놓는다.

쉽지 않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글자를 모르는 것은 아닐텐데,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교육首長만은 '코드'와 무관한 인물들

전격 사임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후임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씨가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는 자율과 경쟁의 신봉자이던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씨가 실망스런 행보 끝에 교육을 흔들어 놓고 사임하는 것도 못마땅 하거니와, 누가 보더라도 참여정부의 핵심 코드인물인 김병준씨를 대한민국 교육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진 상황에서,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학재단의 관계자나 그 비호를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 사학의 투명한 운영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면 부동산 정책의 4적으로 '복부인, 기획부동산 업자, 건설업자, 부동산 광고를 심는 주요인물'을 지명하기도 했다.

자동차 노조 '産別' 전환, 순기능만 살려라

단일 사업장 노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 등 민주 노총 산하 13개 사업장이 지난달 30일 급속노조에 가입키로 결정했다. 또 현재 산별 노조 가입을 묻는 투표가 화섬업종에서 진행 중인데다 상당수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들도 산별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사관계에 대한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순기능도 적지않다. 산별 노조의 공동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크다. 대기업 노조가 일정 부분 양보할 경우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노노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산별교섭이 중심이 되면서 개별기업 노사갈등은 오히려 줄어들고 전체적으로는 파업도 감소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다.

無等鼓

최근 이취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은 일반적인 외교 관행으로 보면 조금 코믹하다.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우의를 다지는 이벤트를 수없이 풀어 놓았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상 외교보다 오렌 친구간의 해후처럼 보였다.

이다"라며 꼬리를 쳤다. 일본과의 우정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대한, 대중 관계는 결코 쉽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3월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 맨(Dis Man)"으로 불렀다. '이 사람'이 '야만' 정도로 해석된 '디스 맨'이란 말은 외교상 심각한 결례였다.

'러브 미 텐더' 회담



최근 이취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은 일반적인 외교 관행으로 보면 조금 코믹하다.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우의를 다지는 이벤트를 수없이 풀어 놓았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상 외교보다 오렌 친구간의 해후처럼 보였다.

일본은 외교상 무례의 경연장이었다. 백악관이나문서는 중국 국영을 '대만'이라고 불렀고, 부시 대통령은 후주석의 팔 소매를 잡아 끌기도 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30일 엘비스의 고향 지택 그레이스랜드를 방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내주었고, 고이즈미 총리는 "꿈만 같다"는 말을 연발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